

염웅택 신원사항(이영신 증언)¹⁾

1969년 가을,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염웅택의 아내 최성률(崔成律)이 종로구 내수동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여 곡절 끝에 방문했으나 벌써 어디론가 이사를 가 버린 뒤였다. 동사무소로 찾아가 전출지를 조사해 보았으나 이 역시 도로에 그치고 말았다. 전출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도리없이 염웅택의 신상 문제는 접어 두고 백의사에 대해서만 소개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실로 그것은 우연이었다. 일본 도쿄교오에 있는 한국연구원 원장인 최서면(崔書勉) 씨가 필자에게 한 자료를 보내왔던 것이다.

자료의 명칭은 「京高特秘 제3210호 김구 일당의 애국단원 검거에 관한 건」이었다. 물론 전부 일본어로 된 기록이었다. 이 경고특비 제3210호는 35년 12월 10일자로 경기도지사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경성지방방위장, 상해총영사, 남경총영사 등에게 보냈던 극비 정보보고서로서, 중국의 남경 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의 한인반 사관 후보생들의 인적사항과 동태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정보 보고서는 「김구 일당의 애국단원」 한 명이 체포되어 진술한 내용과, 다른 경로로 입수한 듯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한 것이었다. 왜경에 체포된 애국단원은 본적을 경성부 원정(지금의 원호로) 668번지에 둔 엄창복(嚴昌福: 당시 24살)으로서 낙양분교의 제1기 졸업생이었다.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내부인의 소행이었던 모양으로 낙양분교 한인반 사관 후보생 92명의 신상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엄창복의 진술에 따라 한인반의 실체를 확인한 왜경은 비밀스럽게 내부자와 접선하여 꽤 오랜 기간 동안 자료를 빼낸 듯하나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 기록을 뒤적이다가 우연히 염웅택의 이름 석 자를 발견했다. 순간 필자는 깊은 산속을 헤매며 광맥을 찾다가 노다지를 발견한듯한 전율과 희열을 느꼈다. 염웅택의 이름 석 자는 사관 후보생 명단에 열여섯 번째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정보 보고서를 통해서 필자는 염웅택의 출생지가 평양이며 서울의 선린상업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생지와 출신학교에 대한 기록은 그의 동지들의 증언과도 일치했다...

경고특비 제3210호에 의하면, 염웅택은 1902년생으로서 1934년에 낙양분교에 입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낙양분교에 한국 독립군의 간부양성을 목적으로 한인반이 설치된 것은 33년 12월이었는데, 염웅택은 제1기 입교생이었다. 그가 선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낙양분교 한인반에 입교하기까지 10여 년간 어디서 무엇을 했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었다(pp. 57-58).

염웅택은 한인반 제1기생으로 입교했다. 그는 신익희(申翼熙)의 추천으로 이청천의 심사를 거쳐 입교했었다. 그의 나이 32세 때였다. 참으로 창피하고 불행한 얘기이나 92명의 제1기생 사관 후보생들은 추천자에 따라 패가 갈렸다. 그들은 김구파, 이청천파, 김원봉파 등 3파로 갈라져 있었다. 염웅택은 이청천파에 속해 있었다. 그를 추천한 신익희가 이청천파 정치적인 노선을 같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pp 64-65).

1) 이영신, 『이영신의 현대사 발굴 비밀결사 백의사(상)』(알림문, 1993), pp. 57-58.